

[변호사시험 대비]

## -법조윤리 시험 후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S O O 씨

### I. 서 설

올해 8월 20일 제2회 법조윤리 시험이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제1회 법조윤리 시험에서 거의 대부분의 응시생들이 통과된 것과는 달리 올해에는 합격하지 못할 수험생들이 제법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시험 난이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생겨난 결과이며, 앞으로 시행될 제3회 법조윤리 시험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제2회 법조윤리에 직접 응시하며 겪었던 과정에서 느낀 점들을 솔직하게 써가면서 다음에 응시할 수험생들에게 조그마한 참고사항이 되길 바래본다.

### II. 시험에 대한 대비

#### 1. 학교수업

대부분의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법조윤리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보다는 학점에 대한 필요 내지 법조윤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수업을 듣고 있다. 그러나 평소 학교에서 진행되는 법조윤리 수업시간에서 중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정리하는 편이 실제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이번 법조윤리에서도 사례문제로 출제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해진 분야가 있었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평소 수업시간에서 다른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정리를 통해 풀 수 있는 것들이었다. 사례문제에 대한 대비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

으므로 평소 수업시간에 간략하나마 다루었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는 법조윤리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주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 2. 기출문제 분석 및 모의고사

법조윤리 시험이 작년 한 번의 시행이 전부라서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지는 의문이었다. 오히려 기출문제를 풀고 시험 당일까지 법조문만 대충 보고 들어가 낭패를 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기출문제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분석의 틀을 어디에 집중하여 나오는지 법조윤리 전체 범위에서의 중요도의 강약 조절 정도의 의미만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된 모의고사나 사설학원의 모의고사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모의고사를 통해 아직 기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느낌은 시험 당일까지 긴장감을 유지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했다.

## 3. 법조문에 대한 철저한 암기

법조윤리 시험에 포함된 법조문에 대한 철저한 암기는 반드시 필요했다. 그러나 무턱대고 외우기에는 그 양이 적지 않았고, 내용도 상당히 혼란스러웠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작고 얇은 요약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 존재하였다. 축조해설집을 계속 보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정확히 찾아서 노트에 정리를 따로 해두었다. 약간 두껍더라도 충실한 해설이 들어 있는 교재가 마지막에는 오히려 부담을 적게 주었다. 이해에 바탕을 둔 법조문에 대한 암기는 실제 시험에서 시간 안배에 중요한 척도로 기능하였다.

## 4. 시험 준비 기간

작년에 법조윤리 시험이 쉽게 출제되고 대다수의 응시자들이 통과되자,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3일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들이 나왔다. 그러나 시험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여러 곳에서 흘러 나왔다. 시험 준비 기간에 정답은 없다. 특히나 상대평가도 아닌 일정 정도 이상을 득점하면 통과되는 시험에서는 수험 전략상 짧은 시간에 최대의 성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절대량이라는 점은 이 경우에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법조윤리 시험에 무리 없이 통과되기 위해 시험 열흘 전에 간단히 평소 정리된 부분에 대한 학습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감을 잡았고, 3일 전에는 법조문에 대한 암기를 반복했다. 양을 늘리기보다는 빠진 부분이 없는 교재를 계속 보았고, 모의고사도 극히 지엽적인 부분은 무시했다.

## 5. 교재

법조윤리 시험의 주교재로 축조해설집을 삼았고, 정형근 저를 계속 참조했다. 모의고사는 학교에서 진행된 것과 사설학원에서 실시된 부분들을 모아 사례 위주로 빠르게 풀고 시험 3일전에 모두 버렸다. 법조문은 시험 당일까지 꼼꼼하게 5회독 이상 반복했다. 교재는 약간 두꺼워도 빠진 것 없이 망라적인 책이 좋다고 생각했다.

## III. 맺음말

시험 후 정답 가안을 보고 답을 맞춰본 후 가벼운 마음이 들었다. 이번 시험으로 인해 주위에서 안타까운 모습도 가끔 본다. 그러나 준비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마지막에 정리와 반복을 한다면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한다. 내년에 응시하는 모든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합격을 기원하며 글을 마친다.